

윤슬을 품은 집, 삶을 엮다

자연의 풍경과 가족의 시선이
교차하는 다층적 주거공간

SYNOPSIS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동정리 218-1 일원
 대지면적: 650.57㎡
 건축면적: 370.8249㎡
 건폐율: 57%
 용적률: 84%



PROLOGUE

이 공간은 단순히 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서로 포개어 연결하는 공간 철학이다. 서로 다른 높이와 방향의 공간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선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서로의 존재와 온기를 느끼게 한다. 스텝을 올리는 벽 없이 열린 관계를 형성한다. 위로 아래가 시각적으로 연결되며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일상 속 소통을 유도한다. 반치하 공간은 외부와 구분되는 길이 있는 휴식의 장소이다. 동시에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아늑한 공동체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REQUIREMENTS

가족들과 소통하는 공간
재량이 잘 드는 공간
취미: 개인 텃밭

개인 작업실
작업도중 휴식 공간
취미: 영화 감상

가족들과 소통하는 공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취미: 독서, 연못 가꾸기

손녀
손자

